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김신욱

진격의 김신욱 'K리그 최고 별'

2013 K리그 대상 클래식·챌린지 시상식

'고공 폭격기' 김신욱(울산 현대)이 2013년 프로축구를 빛낸 최우수 선수(MVP)로 뽑혔다. 상주 상무의 우승을 주도한 이근호는 챌린지 리그 초대 MVP의 영예를 안았다.

울산 김신욱 '별중의 별'
챌린지 MVP엔 이근호
감독상에 황선홍·박항서

◇K리그 클래식(1부)=김신욱은 3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3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클래식 MVP로 선정됐다.

울산 '철퇴축구'의 핵심으로 활약한 김신욱은 기자단 투표에서 총 113표 가운데 90표를 얻는 압도적인 지지로 포항의 이명주(12표)와 서울의 하대성(11표)을 제치고 K리그 최고의 별로 높이 떠올랐다.

김신욱은 이날 MVP로 뽑히면서 득점왕 타이틀을 놓치고 소속팀이 준우승에 머문 아픔을 위로받았다. 또 축구팬이 투표하는 '팬타스틱 플레이어(FAN-tastic Player)'로도 뽑혀 움츠렸던 어깨를 더 폈다.

포항을 챔피언으로 이끌며 대한축구협회(FA)컵까지 '더블'을 달성한 황선홍 감독은 감독상을 받았다.

황 감독은 75표를 얻어 대선배 김호곤 울산 감독(33표)을 뛰어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황 감독은 유일하게 외국인 선수 없이 FA컵 2연패를 이루고 정규리그에서도 왕좌에 올라 절정의 지도력을 과시했다.

생애 한 번뿐인 '영플레이어' 상은 고무열(포항·8골5도움)에게 돌아갔다. 포항은 이명주에 이어 2시즌 연속 수상자를 배출해 국내 최고의 탄탄한 유스 시스템의 진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베스트 11은 준우승팀인 울산과 챔피언 포항이 양분했다. 울산은 김신욱과 이용·김치곤·김승규가 이름을 올려 가장 많은 4명의 베스트 11을 배출했다. 포항은 이명주와 고무열·김원일이 베스트 11으로 뽑혔다.

◇K리그 챌린지(2부)=상주 상무의 우승을 이끈 국가대표 공격수 이근호가 초대 MVP로 우뚝 섰다.

총 108표 중 93.5%에 달하는 101표를 얻은 이근호는 염기훈(경찰·현 수원 삼성), 알렉스(고양)를 제치고 K리그 챌린지 첫 MVP로 이름을 남겼다.

이근호는 지난해 울산 현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정상 등극에 힘을 보태고 올 시즌 상주에 합류했다. 25경기에서 15골을 터뜨려 알렉스(고양)와 득점 수는 같았으나 경기 수가 적어 득점왕에 오르는 등 맹활약했다. 이근호는 알렉스와 함께 K리그 챌린지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도 이름을 올려 3개의 트로피를 가져갔다.

초대 우승팀 상주는 이근호 외에 김호준(GK) 최철순·김형일·이재성(이상 DF), 이호(MF)가 베스트 11에 선정돼 겹경사를 누렸다. 준우승팀인 경찰에서는 오범석(DF), 염기훈(현 수원·MF), 김영후(현 강원·MF)가 베스트 11에 포함됐다.

상주의 우승을 지휘한 박항서 감독은 감독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 K리그 클래식 부문별 수상자
△최우수선수상(MVP) = 김신욱(울산)
△영플레이어상 = 고무열(포항)
△베스트 11 = 김승규(울산·골키퍼) 아디(서울) 김원일(포항) 김치곤 이용(이상 울산·이상 수비수) 고무열 이명주(이상 포항) 하대성(서울) 레오나르도(전북·이상 미드필더) 김신욱(울산) 데얀(서울·이상 공격수)
△감독상 = 황선홍(포항)
△득점상 = 데얀(서울·19득점)
△도움상 = 몰리나(서울·13도움)
△최우수심판 = 유선호(주심) 손재선(부심)
△팬 프렌들리 클럽상 = 경남FC
△풀 스타디움상 = 수원 삼성
△플러스 스타디움상 = 경남FC
△그린 스타디움상 = 울산 현대
△유소년클럽상 = 포항 스틸러스 U-18(포철고)
△사랑나눔상 = 대구FC
△아디다스 올인 팬타스틱 플레이어 = 김신욱(울산)
△페어플레이상 = FC서울

이근호

△특별상 = 권정혁(인천)
◇ K리그 챌린지 부문별 수상자
△ 최우수선수상(MVP) = 이근호(상주)
△ 베스트 11 = 김호준(상주·골키퍼) 최철순 김형일 이재성(이상 상주) 오범석(경찰·이상 수비수) 염기훈 김영후(이상 경찰) 이호(상주) 최진수(안양·이상 미드필더) 이근호(상주) 알렉스(고양·이상 공격수)
△ 득점상 = 이근호(상주·15득점)
△ 도움상 = 염기훈(경찰·현 수원·11도움)
△ 감독상 = 박항서(상주)

나주 영산고 야구팀 창단

나주에 고등학교 야구팀이 탄생한다.

나주 영산고(학교법인 서구학원)가 3일 이사장실에서 박순용 이사장, 윤범림 교장, 한화이글스 김성한 수석코치, 나주시야구협회 허영우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영산고 야구팀 창단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영산고 야구팀은 내년 3월 창단을 목표로 하며 지도자 3명, 선수 18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향후 선수를 30명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초대 감독으로는 동성고와 청원고에서 지도력을 발휘했던 최인수 전 감독이 물망에 올라 있다.

최 감독은 지난 2008년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19년 만에 청원고의 전국대회 우승을 이끈 인물이다.

영산고 야구팀의 창단으로 나주를 중심으로 한 야구 인재들의 체계적인 육성이 가능하게 됐다.

2011년 나주에 리틀 야구단과 남평초 야구팀(감독 김인권)이 만들어진 이후 지난해에는 세지중 야구팀(감독 김태원)이 창단되면서 야구 기반이 조성됐다.

나주에 초·중등부 팀의 추가 창단도 준비되면서 호남 야구의 새로운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영산고 박순용 이사장은 "야구팀 창단이 명문사학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됨은 물론 지역의 명예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지역의 야구인뿐만 아니라 시와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나주지역 야구부 창단에 앞장서고 있는 김성한 한화 수석코치(국민생활체육 광주시야구연합회 회장)는 "광주에 야구부가 활성화됐지만 지역에는 야구를 좋아하고도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며 "야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은 야구인들이 해야하는 일이다"고 언급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kwangju.co.kr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씨름 인기 다시 그때처럼…

3일 화순 하니움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13 씨름 왕중왕전 씨름스타 대전'에 참여한 역대장사 황규연(흥·38·현대삼호중공업 코치)이 이태현(37·용인대 교수)에게 들배지기 기술을 하고 있다. 단체전으로 열린 이날 경기는 이승삼, 이기수, 황규연 등이 이끈 백호팀이 손상주, 박광덕, 이태현 등의 청룡팀을 8-6으로 꺾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